

미륵사지 · 백제왕궁 세계에 알려

정현을 익산시장, 아태총회서 선진사례 공유로 세계적 인지도 높이는 데 일조

정현을 익산시장이 제4차 세계유산 도시기구(OWHC-AP)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를 통해 미륵사지·백제왕궁을 세계에 알렸다.

시는 첨단 실감콘텐츠 기술을 접목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세계문화유산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여나간 선진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경주시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는 25개 국내외(해외14, 국내11)도시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무형 유산 활용 통한 세계유산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회원도시들은 포럼을 통해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협력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태지역 도시간 공동사업 제안과 참여방안에 대해 시장단 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등 논의를 거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10일 별도로 진행된 세계유산도시의 시장단 회의에서는 베트남, 중국, 이란 등 아시아지역 도시들의 정책사례 발표 등을 청취하고 각자의 의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익산의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의 보존과 관리, 다채로운 활용 사례들이 세계유산도시들과 공유되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퍼포먼스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디지털 헤리티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는 익산 반려동물 행사주기에 열린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들이 1천여 반려인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익산댕댕캠프 · 2023댕동회’

익산시 · 문화관광재단,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연속 성공

익산시는 익산 반려동물 행사주기에 열린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들이 1천여 반려인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익산문화재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상품 등의 성공적인 출시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익산시 다송리 일원에서 열린 '2023 익산 댕댕 캠프'와 반려동물 소규모 운동회 '2023 댕동회'가 행사 시작 전 목표인원인 500명을 뛰어넘어 1000여 명의 반려인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행사 기간인 이를 내내 참여한 반려인들도 상당수여서 반려동물 행사에 대한 반려인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사람(펫팸족)의 증가로 동반 여행, 행사 등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수요 계층에 발맞춰 해당 상품을 기획·출시하게 됐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상품 출시 및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연간 1조38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대-인도 공과대, 항공산업분야 등 글로벌 인재 공동 양성

협약 체결... 장단기 학생 교류 통해 적극 나서기로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10일 세계적 명문교인 인도 공과대(IIIT) 항공우주공학과 심(Singh) 교수와 마

이티(Maiti) 교수,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창덕 명예교수의 예상을 받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



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Singh) 교수는 현재 IIITRAM (Institute of Infrastructure, Technology, Research And Management) 대학 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날 논의로 양교는 MOU를 체결하고, 장단기 학생 교류를 통한 우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사만금액이커를 표방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고급 연구 인력 및 실무인재 양성에 커다란 강점이 있고, 인도 공과대(IIIT)은 이론과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교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 협력한다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익산시는 전북 최초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축제,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 서한 발송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홍보 내용을 조례

를 통해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로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균등한 성장 발달 등을 도와 심리적·신체적·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해 밝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 등 사용 일시 중단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13일 지정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조치로,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해당된다.

시스템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군산사랑상품권 충전·결제 등 주요 기능 속도 개선 등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전체 이용자 대상 문자 발송, 앱 푸시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필리핀 마스크라 축제 개최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오는 14일 세계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필리핀 마스크라 축제'를 개최해 세계 문화를 알린다.

'마스크라 축제'는 매년 10월 경 필리핀 네그로스옥시덴탈 바콜로드에서 개최되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가면 축제다.

'마스크라'는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Mass)와 얼굴을 의미하는 에스파냐어(Kara)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많은 얼굴을 뜻하며 항상 웃으며 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필리핀 문화와 마스크라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세계 축제 체험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준비되었다.

마스크라 가면 만들기, 필리핀 문화 이해 체험 및 전통 놀이 체험 홍보관, 얼굴 그림(face painting)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는 유료 체험 홍보관에서는 필리핀 대표 간식인 '툼피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2023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막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사업인 '2023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오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 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한다.

시가 주최하고 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위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그동안 학습한 평생학습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한마당 행사는 '군산 - 평생학습으로 물들다'란 주제로 64개의 평생교육 기관·단체·동아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동네문화카페 및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평생학습인 예술제 등 다채로운 무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특

히, 39개 부스에서는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4차산업 관련 VR, AR 등 57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안내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교육생의 작품 전시회도 운영된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포토존 사진 촬영, 체험부스 참가자 선물 증정,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행사 참여 즐거움을 더해 줄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2023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는 평생학습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